

모래상자상담에서 원형(原型)과 상징¹⁾

송순²⁾

The Archetype and Symbols on Sandtray Therapy

Soon Song (emeritus Prof. Wonkwang Univ.)

요 약

본 연구는 모래상자상담에서 원형과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원형은 자아가 무의식을 외면하거나 억압할 때 자기답게 살도록 자아를 깨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기능은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본능과 원형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인간의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원형의 기능은 특히 인생의 주요 전환기, 예를 들어 유년기,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등에 큰 꿈으로 나타나며, 이는 자아와 무의식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래상자상담은 무의식과의 대화가 모래그림으로 형상화되는 전체적 정신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모래와 상징물(피겨)을 활용해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형상화하고, 심리적 자기 조절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 모래상자 꾸미기의 반복적 과정은 내담자가 내면의 자기 조절 장치를 활성화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통합하는 중요한 과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모래상자상담에서 원형적 상징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변형되며, 이 과정이 내담자의 치유와 자기실현, 개성화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모래상자상담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원형, 상징, 모래상자상담, 모래상자꾸미기, 집단무의식, 자기 조절, 개성화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archetypes and symbols in Sandtray Therapy, focusing on how these elements manifest within the therapeutic process. Archetypes are powerful forces that compel self-awareness, especially when consciousness neglects or represses the unconscious. These archetypal functions manifest through symbolic images and play significant roles during life transitions, such as early childhood, adolescence, midlife, and old ag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ncts and archetypes is intricate, with neither reducible to the other. They coexist as aspect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forming the foundation of the human psyche. In Sandtray Therapy, clients engage with their unconscious through symbolic images and objects, facilitating a dialogue between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s. This process enables clients to project and integrate their unconscious material,

1) 본 연구는 2015년 모래상자치료학회 10주년 학술대회발표내용(송 순, 2015) 수정보완 작성되었음.

2)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원광대아동청소년연구센터연구원, 익산시모래상자상담연구소장).

leading to self-regulation and healing. The therapeutic use of sand, figures, and symbols in Sandtray Therap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clients to explore and integrate archetypal images, such as the maternal archetype, child archetype, hero, and self-archetype. The therapy process involves repetitive sandtray creation, which activates the mind's self-regulating mechanism, promoting psychological balance and growth. By examining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archetypal symbols in the sandtray,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clinical application of Sandtray Therapy in facilitating self-realization and individuation.

Keywords : Archetype, Symbol, Sandtray Therapy, Sandtray creation, Collective Unconscious, Self-Regulation, Individuation.

1. 서론

모래상자상담은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여 모래상자에 표현되는 과정이다. 모래상자에 표현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표현하는 마음의 내용들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표현되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자아를 중심으로 정신의 외계인 의식과 정신의 내계인 무의식(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을 이룰 때 완전한 인격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아가 지나치게 의식에만 집중하여 분열되어 있을 때(해리)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잃고 부적응이나 병리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내적 조절 장치인 자기 원형이 작동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기능을 하게 되며 자기 원형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이부영, 1978). 내담자들은 모래상자에서 이미지가 투사된 피겨들로써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게 되며 상담자들은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을 내담자의 확인을 거쳐 서로 일치할 때 라포가 형성되고 상담이 효과를 발휘하여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원형이 모래상자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며 병든 마음 분열과 해리된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 즉 자아 실현(개성화)되며 전체성으로서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모래상자에서 원형들이 상징화되어 나타나고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중세 연금술사가 중요한 물질들을 얻어 내기 위해 고심하였던 것처럼 정신의 변환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모래상자상담의 임상적 관련성을 논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 자료는 문헌을 통해 얻어질 것이며 연구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원형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 정리해 본다.
- 2) 원형의(모성원형, 아동원형, 영웅원형, 자기 원형 등)표현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 3) 모래상자에 나타는 원형적 상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2. Jung의 마음의 구조와 원형에 대하여

Jung은 정신세계의 구조를 밝혀내기 위하여 꿈과 환상 작업을 지속하였다. 꿈이 보여주는 상징과 의미 지속되는 환상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밝혀내며 그의 정신의 구조를 밝혀내었다. 마음의 구조 중 첫 번째는 의식의 세계이다. 두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이며 원형과 원형의 기능이 작동하는 부분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할지도 모르는(가정) 원형은 정신의 성질로서 정신양(Psychoid)이라고도 부르며 원형이 기능한다는 것은 그 원형의 이미지 원형상의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이부영, 1978).

2.1 의식

마음에는 우선 ‘나’ 자아(ego)가 있고 ‘나’의 둘레에는 의식이 있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기능하며 무의식의 내용을 수용하고 확장하며 인격의 발달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나의 이념 나의 과거, 내가 아는 이 세계 무엇이든 자아를 통해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은 의식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직 모르는 미지의 정신 세계이며 자아에 속하지 않으며 자아와 아직 연관되지 않고 있는 모든 심리적 경향으로 자아의 통제 밖에 있는 세계이다. 그러나 의식-무의식이란 개념은 정신의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시도에 불과한 것이며 살아 움직이는 정신 현상을 어떠한 개념으로 圖式化한 것은 아니다(박찬부, 1980).

자아가 중심인 의식은 ‘연속적인 현상’이며 의식은 좁기 때문에 정신의 전체성을 파악할 수 없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 같이 어느 특수한 순간만 볼 수 있다(지각할 수 있다)고 한다. 무의식이 거대하며 언제나 계속되는 것에 비해 의식의 영역은 순간적인 영상일 뿐이다. Jung에 의하면 의식은 외부세계에 대한 방향 감각과 지각의 산물로써 처음에 있던 것은 무의식적인 것이었고 의식은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유아기에는 무의식적 상태이었으며 중요한 본능적 기능들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아이들은 마치 자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4세 또는 그 이전에 자아감각인 ‘나,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이부영, 1987)³⁾.

Jung에 의하면 ‘나’의 감각은 신체적 identity에서 처음 생긴다. 의식은 처음에는 자기신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 다음 일련의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다. 의식은 그 이후에 정신적 기능의 분화와 다양한 개인적 분화 등이 뒤 따르며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등 Jung의 정신의 네 가지 기본 기능은 의식의 내용이 되고 분화의 정도에 따라 무의식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C.G. Jung, 1968 : 정명진 역, 2019).

Jung에 의하면 자아의 탄생은 외상적(highly traumatic)이어서 자아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콤플렉스는 의식의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가 현실(현상)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열등감이다.

의식은 무의식의 산물이며 의식을 깨우는 일은 격렬한 노력을 요한다고 한다. 어떤 기억들은 의

3)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송 순(2022) pp4-6을 읽어보실 것.

식됨으로써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할 수 있고 두렵고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Jung에 의하면 원시인들은 쉽게 멎어지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앉아 있는 수가 있다. 정신적 기능의 측면에서 의식이 무의식에 비해 작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의식의 中心에 있는 자아가 없으면 인간 정신의 성숙은 불가능하고 개성화(individuation)도 불가능하다.

의식의 중심에 있는 自我의 기능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자아는 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 나의 마음 내계와 관계를 갖고 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 있으며 의식은 피부와 같은 표면이다. 인간의 탄생은 자아의 탄생을 의미하며 자아는 무의식의 어두운 세계에서 무의식의 내용을 끌어당기고 동시에 외부의 여러 인상도 끌어당긴다. 자아가 내부와 관련 가지면 의식이 되는 것이다.

자아가 분열되면 모든 가치 감각이 사라지고 경직되어 능동적 재생이 어려워진다. 자아의 무의식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무의식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Jung에 의하면 자아가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하고자 할수록 무의식은 창조적 암시를 더욱 활발히 내보내게 된다.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에서 끌어당기고 밖에서 오는 여러 인상들을 끌어당기면서 생기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 자아콤플렉스는 그것들이 자아와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의식이 되며 해결가능해진다고 한다(이부영, 1978).

의식은 무의식에 비해 작은 섬 같은 것이라지만 의식은 작은 섬처럼 가만히 있는 실체는 아니다. 의식은 시시로 변화하고 커지기도 하며 무의식의 내용을 자아의 기능에 의해 의식화함으로써 지각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의식에 면하고 있는 무의식은 항상 변화하여 어떤 때는 의식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무의식이 되는 것처럼 의식 자체도 상대적이다. 즉 무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고 의식성이 우세한 의식이 있다. ‘의식의 빛’은 여러 차원의 밝음과 어둠(그림자)을 가지고 있고 자아콤플렉스 또한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다. 유아나 원시인 단계에서는 의식이 자아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내적 또는 외적 사건, 본능, 감정이 환기시키는 곳에서 촉발적으로 드러난다. 이 단계에서 의식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자아의식은 작은 섬광들처럼 존재하게 된다.

2.2 무의식

정신의 두 번째 세계는 무의식이다. 無意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의 ‘미지의 정신세계’ 또는 ‘未意識’이다. Jung에 의하면 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정신의 모든 것이다. 무의식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경험해 봄으로써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Jung은 무의식에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 중 지금 현재 기억해 낼 수 없는 모든 것들과, 어렸을 적 경험들과 현실 세계의 도덕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서 억압시켜 버린 심리적 내용들이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갖고 구하는 것, 생각들, 고의로 눌러버린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들, 의식에 도달하기에는 자극강도가 미약한 지각의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무의식의 층은 의식이 그러한 것처럼 개인의 특수한 생활 경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상 특성을 이루는 것들이어서 Jung은 이를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하였다(원형과 무의식, 2002). Freud가 말하는 무의식은 여기에 해당한다(박찬부,

1980).

그러나 무의식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과는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태어난 후 경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으로서 일찍이 의식된 일이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개인의 특성보다 인류 일반의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무의식**이라 하였다. Jung이 집단적 무의식의 개념을 생각하도록 한 최초의 꿈이 있다(기억 꿈 사상 pp. 232-233).

「나는 어느 낮선 2층집에 있었다. 그것은 ‘나의 집’이었다. 나는 2층에 있었는데 그곳은 로코코 양식의 훌륭한 고가구들이 갖추어진 일종의 거실이었다. 벽에는 값진 옛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다. 나는 이 집이 정말 내 집일까? 의아해 하면서도 ‘나쁘지는 않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래층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층계를 거쳐 1층으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더 오래된 온갖 가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이 집의 1층 이 부분은 15~16세기의 물건들로 꾸며져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가구들은 중세풍이었고 마룟바닥에는 빨간 벽돌이 깔려 있었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편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집 전체를 둘러보아야겠군.” 하며 이방에서 저 방으로 다녀 보았다. 그러다가 육중한 문과 마주쳐 그 문을 열었다. 그 뒤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돌계단을 발견했다. 나는 돌계단을 내려가 아름다운 천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아주 고풍스러웠다. 나는 벽을 조사하다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석재 사이에서 벽돌 층을 발견하였다. 그 벽돌들은 모르타르에 묻혀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자마자 벽이 로마시대의 것임을 알았다. 이쯤 되자 나의 흥미는 더해 갔다. 나는 마룟바닥을 더욱 면밀히 조사했다. 마룟바닥은 석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중 한 개의 석판에 고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그 고리를 잡아당기자 석판이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아래쪽으로 향하는 좁은 돌계단이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또 그 돌계단을 내려가 바위를 뚫어 만든 나지막한 동굴로 들어섰다. 바닥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먼지더미 속에 원시문화의 유물들처럼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한 반쯤 삭아버린 두개골 두 개를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Jung의 꿈 내용에는 무의식으로 하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돌계단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천장이 있는 방(개인무의식)과 원시 문화는 집단적 무의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집단적 무의식에 원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근원적 유형(原型)들에 의해 구성된다. 원형은 인간의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무의식으로 일깨워진 원형은 이미 지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며 이를 원형상이라 한다. 우리가 원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원형상을 통해서이다. 원형이란 지리적 차이 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관련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이며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이며 인간 마음속의 종교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Jung은 사회적 지위 활동 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관조하며 마음속에 흐르는 무의식의 현상들을 관조하면서 근원적 유형론의 틀을 잡아갔다. 무의식에 있어서 근원적 심성이 현존하는 원시인들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며 스스로 심리학적 명상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심리적 실습을 하며 심상들을 그림 조각 등의 작품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원형이 기능하는 방식을 Jung은 적도 근처 아프리카 엘곤산 남쪽 기슭의 사람들(엘곤족)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움막 앞에 나와서 손을 입에 대고 그 안에 침을 뱉거나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팔을 들어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내보임과 같은 행위로 신에 대한 숭배행위를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침과 숨결은 심혼의 물질이라고 설명한다(원형과 무의식 p.74).

원형적 성질에 대해 Jung은 원형적 표상과 원형 그 자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원형적 표상은 이미 의식되어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기본형식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미 의식되어 있어 다양하게 변용된 현상들이다. 우리의 의식이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원형 그 자체는 정신양(精神樣, Psychoid 정신의 모양새) 요소로서 정신적 스펙트럼의 불가시적 자외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식 불가능한 것인듯하다고 가설한다. Jung은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이유를 의식으로 인지되는 모든 원형적인 것들은 기본주체에 대한 변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 한다. 원형 그 자체는 의식 불가능한 초월적인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정신양(정신의 모양) 이라고 부른다. 정신의 양은 특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공식으로 가정해 볼 수 없고 오직 그 '성질' 즉 형상을 갖춘 구체성에 의존할 뿐이다. '원형'을 말할 때 그 자체는 분명히 볼 수 없으나 작용을 하는 것, 즉 원형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원형과 무의식pp.79-80). 원형에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신적이라고 묘사할 수는 없는 성질이 있다(원형과 무의식 P.99).

Jung은 마음의 근원이 정신적 세계에서 물질적 세계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인간 삶의 원만함 자기의 세계에 일치함으로서 안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원시적 세계와 자신의 무의식적 세계를 탐구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의 학문의 세계를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Jung의 노력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양극에 다리를 놓으려는 데에 있다. 이를 이부영(1987)은 현대적 연금술사로서 마음의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의식의 힘은 의식의 영역을 침범하여 의식을 동화해 나아 가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무의식의 본래 기능은 아니다. 무의식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은 것이다. 무의식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나 무의식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의식은 방어해야 할 위험한 충동이 아니고 체험하여 의식의 것으로 동화해야 할 것들이다.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태도는 무의식이 지닌 지향적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C.G.Jung, 1962 : 조성기 역, 2007).

무의식은 샘물 같아서 인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한 거대한 바다와 같고 에너지의 저장고이다. 그래서 산호, 해초, 바다생물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과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무의식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그것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심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태 비도덕적 행동 등에 대해서는 무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대하게 대면해 나가야한다. 원형은 무의식의 정신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콤플렉스 심리학의 주된 활동은 무의식적 내용의 의식으로서의 통합으로써 통합은 주관적인 자아의식의 독재를 제거하고 주관적 자아의식에 무의식적인 집단내용을 대립시키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원형과 무의식 p.84). 자아의식이 좌우되는 두 가지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집단적 사회적 의식의 여러 조건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집단적주특성, 또는 원형의 영역이다. 자아의식을 좌우하는 무의식적 집단적주특성 또는 원형의 영역은 두 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충동영역(자

연적인 동인)과 원형의 영역(의식의 영역에 나타나는 지배적주특성)이다(원형과 무의식 p.85).

3. 원형(原型archetypes)의 표현과 기능

Jung은 인간 정신의 무의식에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성적인 욕구나 충동뿐 아니라 종교적 원천과 같은 전혀 다른 창조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는 모든 인류에게 태초의 시간부터 내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原象이라 하였다. 원형이란 근원적 유형(archetypes)으로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표현되는 마음 즉 정신세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원형은 본능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본능과 원형은 상응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지만 원형이 본능으로 환원되거나 본능이 원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한다. 본능과 원형은 서로 밀접한 대응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모든 정신 에너지의 기초가 되는 대극의 구조를 갖는 마음에 반영체로 나란히 존속한다.”(Stein, M.,1998 : 김창한 역, 2016). 원형과 본능은 관념상으로는 구분이 되나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현상에 속하며 집단적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이부영, 1978. p.91). “본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특유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면 원형은 인간 특유의 성품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원형의 개념은 플라톤이 처음으로 말한 뒤 많은 철학자들이 그 개념을 설파하고 있지만 Jung의 원형론은 Jung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原型은 단순한 지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방출한 적이 없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前 정신을 사로잡는 원초적인 힘이다.

原型은 인간이면 누구의 정신에나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핵으로써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태고적부터 현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으며, 반복되어 갈 인류의 근원적인 행동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조건이다. 원형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 민담, 원시인의 사유, 각종 종교현상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며 이는 한 인간의 꿈, 환상, 망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작업이며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다. 즉 원형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문화권 어떠한 종족의 인간도 어떠한 시대의 사람도 한결같이 생각하였고, 느꼈고, 행동했고 말한 것들의 유형들이다(이부영, 1978).

인류가 죽음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어린이 노인 위대한 부모의 힘에 대하여, 어둠과 광명, 크나큰 조물주의 힘과 현자의 지혜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 온 모든 것들은 태초로부터의 체험의 집전이며 원형이다. 原型은 유형의 특징에 따라 어린이 원형, 태모원형, 현자원형, 영웅원형, 삶의 원형, 정신의 원형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원형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시공을 넘어 항상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며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틀이라고 할 수 있다(이부영, 1978).

모성원형상은 모성상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현존을 위한 정신과 육체적 기초이다. 신체는 심혼을 품고 있는 그릇으로서 심상적 언어의 표현으로 무의식을 형성하고 출산한다는 의미이다. 물질 material과 어머니mater, mutter는 동일한 어근이다.

모성원형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모성원형의 성질은 ‘모성적인 것’이다.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 권위는 상식적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의 숭고함이며, 자애로움, 돌봄, 유지하는 것이며 성장을 위

해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이다. 마술적인 변용의 터전이고 재생의 터전이다. 모성원형은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키벨레-아티스신화). 모성원형은 신화 속 어머니여신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모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성원형의 덕분이다(김재옥, 2022).

전형적인 모성원형의 형태(상징)들은 개인적 어머니와 할머니, 계모 장모 시어머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밖의 여인들, 유모 보모, 조상할머니 백색의 여인 유령(죽음을 예고하는 눈의 인격화), 여신(모성신, 성처녀 : 되 젊어진 어머니로 예를 들어 데메테르와 코레), 지혜의 여신 소피아(어머니 애인 또는 키벨레-아티스유형), 구원을 희구하는 궁극적 목표(낙원, 신의 나라, 천상의 예루살렘), 보다 넓은 의미의 교회, 대학교, 도시, 나라, 하늘, 땅, 숲, 바다, 고요한 물, 물질, 지하세계, 달이 있고 좁은 의미로 출산, 논밭, 정원, 바위, 동굴, 나무, 수원지, 깊은 우물, 세레반, 그릇으로의 꽃(장미와 연꽃) 마법의 원으로서(만다라), 제우스에게 젖을 먹였다는 염소의 뿔, 가장 좁은 의미로 자궁, 모든 구멍의 형태(예; 암나사), 요니, 빵 굽는 오븐, 요리냄비, 암소, 토끼, 도움을 주는 일반 동물들이 있다 (원형과 무의식 pp.201-202).

상징들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또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⁴⁾. 모성원형의 양가적 측면으로는 운명의 여신(파르젠, 그래엔, 노르넨)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마녀, 용(거대한 물고기와 뱀(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 칭칭 감는 동물들), 무덤, 석관, 물의 심연, 죽음, 유령, 어린이를 놀라게 하는 괴물(엠푸사 유형, 릴리스 등)이 있다.

실제여성이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성원형의 네 가지 캐릭터는 첫째 모성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힘쓰는 유형, 둘째 에로스가 강화되어 어머니를 경쟁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유형, 셋째 어머니를 절대어머니로 여기는 자아의식이 약한 유형, 넷째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과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폰프란츠, 2017 의 아니무스가 강화된 ‘거미가 된 여성’신화)의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모성콤플렉스는 모성이 선재하는 ‘남녀’ 대극쌍 원형의 여성적 부분에 정상적으로 어디서나 일어나듯 동화된 뒤에 모성의 原象으로부터의 분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됨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아들의 모성콤플렉스는 동성애 또는 호색한 돈후안 또는 성불능적으로 나타난다. 돈후안은 ‘모든 여성에게서 어머니’를 찾는다. 아들에 미치는 모성콤플렉스의 작용은 키벨레-아티스 유형이 있다. 대지의 풍요신이며 태모신 키벨레는 사랑스런 그의 아들 아티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질투심에 결혼식에 나타나 아티스를 미치게 하고 아티스는 스스로 거세하여 죽는다. 아들의 모성 콤플렉스는 자기거세, 광기, 이른 죽음으로 표현된다. 아들의 모성콤플렉스는 모성원형과 나란히 성적 반려자 원형 아니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성장하며 아들은 어머니의 여성성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최소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어머니와 동일시하거나 구분하려고 저항하는 단순한 관계, 에로스적인 매력과 혐오의 요인들이 아들 안에서 서로 충돌하여 매우 복잡해진다.

딸의 모성콤플렉스는 여성성의 비대 또는 위축으로 표현된다. 모성본능이 강화되어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데메테르) 에로스는 모성적 관계에서만 발달하고 무의식에로스는 권력으로 나타난다(섭

4) 송 순 (2017, 2018, 2018) : 일반적인 상징적 의미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인간생활에 유익한 것은 긍정적인, 인간생활에 해롭거나 공포를 주는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에로스의 과도한 증가는 모성본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기혼 남성에게 접근). 여성의 모성 콤플렉스에서 에로스 강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와 동체성이 일어나서 여성적 활동의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모성콤플렉스의 긍정적 측면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청송의 대상이 된 어머니상이다(신사 임당). 과도한 모성애는 우리를 어머니에게 고착시키고 어머니를 아이에게 속박시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행하게 한다. 남성의 모성콤플렉스는 아니마의 원형과 혼합되어 더욱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어린이 원형(원형과 무의식 pp.239~243)은 신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걸 맞는 예이다. 신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원초적 ‘재생성’이며 무의식적 정신 영역이다. 원형은 어떤 물리적 사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혼Seele의 그 물리적 사실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묘사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환상 활동에서 집단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신화적 유형은 신체를 이루는 형태학적 요소처럼 유전이 되기 때문에 원시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원시인들은 신화를 의식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집단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무의식의 환상 활동은 집중력이 떨어진 의식 상태(꿈, 섬망, 백일몽, 환영)에서는 의식이 집중을 하더라도 무의식의 내용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열린 옆문으로 나오듯 이전의 무의식적 자료가 의식 공간으로 흘러들어가며, 의식의 강도 저하, 집중력과 주의력의 소실, 즉 “의식수준의 저하”는 신화 형성의 근원으로 짐작되는 원시인의 의식 상태에 해당된다. 신화학적 원형들도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형적 구조의 표명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이 무의식의 산물을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적 원칙이 있다. 원형적 성질의 내용들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것들은 의식하고 있는 것이나 의식되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인 것과 관련되므로 원형적 성질의 내용들이 어디에 관계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마치 ~처럼’에 머물 뿐이며 궁극적인 의미의 핵은 옮겨 쓸 수는 있지만 직접 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때의 정신은 아직 인격의 단일성으로 의식 자체가 없는 전의식 상태로써 초기 유아기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초기 유아들이 꾸는 꿈은 매우 주목할 만한 원형적 내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신화가 태양이나 달, 아버지나 어머니, 성욕이나 불 또는 물과 관련되는지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무의식의 의미의 핵을 옮겨 써서 그 특징을 가능한 가깝게 나타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원형은 심혼적 생명력이었으며 원형은 늘 보호자이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자였으므로, 원형의 손상은 원시인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위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형은 소홀히 하거나 잘못 다룬 신체 기관이나 기능 체계가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노이로제나 심지어 정신병과 같은 장애가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형적 내용은 언어적인 비유로써 얼마간 적합하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이는 알려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신화는 원시 종족의 영적 삶에 해당하며 한 종족의 신화는 그들의 살아 있는 종교이므로 그것을

않으면 도덕적 파멸이 따르기도 한다.

어린이 원형은 과거 상태를 의미하는 원형이다. 어린이 주제는 잊혀진 우리의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을 나타낸 상일 수도 있지만 원형은 개인에 속하는 상이 아니라 전체인류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제는 집단정신의 前 의식적 유소아기의 측면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어린이 원형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 삶의 일정한 단면을 독립시키고 인격화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일어난 해리를 알아차리고, 어린 시기의 상과 그에 연관된 모든 것을 의식에 제시하여 근원적인 조건과의 결합이 단절되지 않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원형과 무의식 pp.249-250).

어린이 원형의 기능은 뿌리로부터 단절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일방성과 일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원형과 무의식 pp.251-252). 어린이 원형의 등장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기보다는 미래 발전의 앞당김을 의미하는 미래적 특성을 의미한다. 신화에서 구원자들이 어린이 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을 융합하는 상징으로서 구원자, 즉 전체성의 실현자이다. 이는 잠재적 상태를 현재적 상태로 실현한다는 의미로써 발전과 완성을 성취시키는 유기체 내부에 있는 힘으로써 엔텔레키Entelechie를 의미한다(원형과 무의식 pp.253~256).

어린이 주제에 나타나는 단일성과 다수성에 대하여, 어린이 주제에 등장하는 작은 인간들(난쟁이, 소년들)의 경우는 정신적 해리의 가능성이다, 수많은 어린이의 등장은 인격해체의 산물이며 이러한 다수성이 정상인에게 나타난다면 아직 완수되지 않은 인격적 합성의 표현일 수 있다. 즉 전체성을 자신의 고유한 인격의 틀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가족,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며 집단의 다수성에 동일시하는 정신적 현상이다. 어린이 주제가 단일성 형태로 등장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이미 완수된 무의식적 인격의 합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원형과 무의식 p. 254)

어린이 원형은 ‘신’ 또는 ‘영웅’의 의미를 포함한다. 신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존재에 통합되지 않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집단적 무의식을 인격화하며 ‘영웅’은 아직 인간화되지 않은 신성한 무의식과 인간의식의 합성이다. ‘비범한 출생’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은 보통으로 경험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정신적 생성이며 전체성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될 고난을 묘사하려는 것이다. 온전한 자기 성취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무력함, 곤궁함을 극복하는 엔텔레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소하고 ‘보잘 것 없음’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어린이 원형은 이러한 신적, 또는 영웅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원형과 무의식 pp.254-256).

어린이 원형의 특수한 형상학은 어린이의 버림받음이다. 둘째는 정복할 수 없는 어린이이다. 세 번째는 자웅동체의 어린이이다. 마지막은 시작이자 마지막 존재로서 어린이이다. 어린이의 버림받음은 자신의 근원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자립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유대(의식)을 풀어버리고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돌과구 없는 갈등 상황은 의식을 초월한 보다 높은 세계의 고독과 같으며 무의식적 정신은 예상하지 못한 비합리적 성질이 제3의 것 ‘누미노제적’ 특성을 갖게 된다.

정복할 수 없는 어린이 신화에서는 ‘어린이’가 막강한 적들에게 내맡겨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보잘 것 없음’ ‘단지 아이에 불과하지만 한편

‘신적’이라는 심리학적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겨 내야 할 힘이 너무나 커서 ‘어린이’는 의식의 요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의식에 귀속됨으로써 신화는 ‘어린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하고 ‘어린이’는 온갖 역경을 이겨 나가는 것이다. ‘어린이’는 무의식의 탄생으로 무의식의 품에서 빠져 나오고, 인간본성의 근원(생동하는 본성)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영웅 어린이의 모습은 머슴의 모습으로 나타나며(헤라클레스) 이는 어린이의 무력함에서 벗어났지만 아직은 보잘 것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아팽창(부정적 팽창)이 일어나기 쉽다.

자용동체로서의 어린이는 자용동체는 특이한 ‘대극의 합일’이다. 의식이 막 생기려는 원시적 정신 상태에서 ‘차이’와 ‘대극’이 분리되지 않거나 소실되어 있고, 의식이 점점 밝아지면서 두 대극은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떨어져 나가 양립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시작이자 마지막 존재로서의 어린이는 심리학적으로 어린이는 의식 이전과 의식 이후의 인간존재를 상징한다. 인간 안에 내재한 ‘영원한 어린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며, 부적응, 불이익, 신적 특권, 궁극적 가치와 무가치를 하나의 인격에다 실현한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웅원형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 즉 어린이 원형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영웅원형은 어린애 같은 환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 방식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어린이 원형과 다른 점이다(Stien, M.1998 : 김창한 역, 2016. p.136)

原型의 내용은 像Image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 그 자체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현상을 통해 그 현상을 일으키는 본체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어서 원형이란 그 자체는 비어 있는 형태적 요소이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여러 관념 유형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 자체 즉 원형자체가 아니라 原型像들이다. 표현되는 원형상들이 의미하는 것을 추론하며 내담자의 무의식의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原型은 어떤 때 나타나는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원형의 작용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체나 집단의 정신 상황에서 그것이 요청될 때 무의식 속에 배정되며 어떤 형태로든(꿈, 환상) 의식에 나타나 체험되게 된다. 의식의 일방적인 발달과 분화, 무의식에 대한 경시로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자아의식의 모체로부터의 단절, 하나의 근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代償作用으로 원형이 나타나게 되며 이 경우 원형상은 예시와 경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직된 의식이 한 방향으로 극도로 치달을 때 무의식의 대상적 경향은 그 반대 극으로 달리게 되어 의식의 태도와 다른 극단적인 경향이 의식을 지배하기에 이르른다(꿈과 환상에 대한 적극적 상상으로 알아질 수 있다). 즉 원형은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거나 억압할 때 오히려 강력한 힘으로 의식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 인생의 전환기인 3세~5세경까지의 아이, 사춘기 전후, 중년기, 노년기에는 곧잘 그의 인생의 전기를 이루게 하는 큰 꿈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형의 작용의 결과라고 한다.

Barbara(2005)는 原型은 정신 경험의 결정화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발휘하도록 하는 정신 내부의 지점이며 잠재력 또는 가능성의 유형이다. 따라서 원형은 매우 강한 에너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며 원형은 정신 경험의 결정화된 본질이며 열매라고 설명한다. 원형은 유전되어 온 정신의 한 부분으로 심리적 경험의 주요한 형태를 구성한다. 정신 경험의 핵심적인 형태로써 원형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발휘하도록 하는 정신 내부의 지점이다. Jung에 의하면 원형은 불명확한 것으로부터 명확

한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점이다. 무의식의 내용을 끌어내어 의식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며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어 치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아가 의식에만 집착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의 세계 무의식을 볼 수 없을 때 인간에게는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가 그 자신으로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투사와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탈(페르조나)이나 자아의식에 집착하여 경직된 ‘역할’ 속에서 기계적으로 살고 있을 때면 그의 다른 면(무의식)이 그의 삶의 일부로 참여시켜 주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아가 의식에만 집착되면 무의식은 ‘代償機能’을 발휘하여 의식에 포함되어 전체가 되려고 한다. 무의식의 심층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되게끔 하려는 원동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힘은 인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신의 전체가 되도록 자극하게 되는 데 이 무의식의 힘을 Jung은 ‘自己原型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하나인 그의 전부로써 자기(Self)는 무의식의 중핵이며 마음 속 깊은 자리 인간의 존엄성의 자리이다. 의식이 일방적으로 의식만 고집하며 자기자신(Self)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의식과의 의식적 관계가 상실되며 이것은 두 개의 정신세계(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을 의미한다(해리). 분열은 정신적 위기이며 무의식은 이러한 단절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단절된 마음을 이으려고 애쓰며 이때 자기원형상이 출현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와 단절(병, 장애)을 극복하려고 한다. 단절(병, 장애)의 고통 속에서 자기와 일치가 실현되고 부분(자아)에서 전체(자기)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병은 사라지게 된다. 자기와의 일치 과정(정신적 해리의 극복)은 고통을 수반하는 창조의 과정(자아실현)이며 이러한 자아실현의 과정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기는 상징을 통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자기원형상’이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인격적인 상으로 나타난다. 모성원형상, 어린이 원형상, 자기원형의 상징도 두 가지 대조적인 요소의 합일로 표현된다. 자기원형은 인간의 온 정신이 참여하는 커다란 체험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질서를 형성하며 혼돈으로 하여금 우주적 질서로 전환하게하며 내적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꿈을 창출하고 조직하는 꿈의 원천이며 마음의 전체성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인간 내면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며 삶의 한계에 부딪혀 곤경에 처할 때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출현하여 구출한다.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새때, 두꺼비가 나타나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주인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힘 즉 이러한 ‘자기’를 가지고 있어 새때, 두꺼비와 같은 ‘자기원형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마음의 일부만 형성하고 있는 자아와 구별되는 것으로써 고대부터 인간의 이성인 내적 중심인 자기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방향성을 지켜 나아간 것이다. 고대 유목민들은 어디에 천막을 쳐야 양떼들의 먹이 풀밭을 찾을지를 마음 내부의 안내자인 ‘자기’에 귀 기울여 알아냈다. 원시인들의 멍때림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안내자에게 집중하여 방향성을 찾아가는 행위이다.

원형과 동시성 현상에서 동시성이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의미 있는 일치가 일어나는 것으로써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은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면 꿈과 비

행기 추락 사이에 어떠한 인과적 연결이 존재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연의 일치가 한편에서는 정신적 이미지를, 다른 한편에서는 물리적 사건을 유발하는 조직자에 근거한다고 가정한다.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이 사건들 사이의 연결 고리는 인과적 관계는 아니다. 동시성 현상은 의식의 낮은 수준에서 정신이 작용할 때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Jung의 설명은 원형은 비정신적 측면을 갖고 무의식적 동인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텔레파시’ 등으로 간주되는 동시성 현상에 기인한다. 동시성 현상과 관련해서 인과성이 원형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시성을 조직하는 ‘동인들’은 원형들과 연결되는 듯 보인다고 말한다(Stein, M., 1998 : 김창한 역, 2016 pp.296-298). 유기체의 집단적 무의식에 존재하는 정신의 질로써 원형들은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며 인류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원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이라면 자기실현은 이러한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이부영, 1978). 자기실현은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여 온전해지는 것이며 진정한 個性을 실현한다는 뜻으로 자기실현이란 내면의 자기(Self)가 바로 그 자신이 되는 것으로서 個性化라고도 한다.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직면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자아의 결단과 용기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식의 뒤에 존재하는 밝음과 어두움이 비춰져서 나타나는 자아의 콤플렉스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대면할 용기와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자기(Self)를 업고 갈 용기 즉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영웅의 소명).

그러나 자기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신병리 현상이 있다. 개성화과정이 의식이 무의식의 부분을 받아들여 (인격의 무의식적 부분이 의식화되면) 무의식적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자아인격에 동화 될 뿐 아니라, 자아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자아인격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아는 무의식적 부분에서 침투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동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식수준이 낮을 때 무의식적 내용의 유입에 저항하기에 약하여 자아가 무의식에 동화됨으로써 자아의식이 말소되거나 은폐되어 자아의식과 전 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가 생겨나게 되면 이는 자기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아의식의 존재에 해를 입혀서 병리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의식수준의 저하’로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자아가 압도되고 전 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는 엄청난 ‘정신적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아의식의 보상으로 작용할 때에 기능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자아가 자기와의 동일시로 해체되면 교만한 자아와 불명료한 자기를 갖는 모호한 초인이 생겨나서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자처럼 행동하여도 어둠이 밀려올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신적인 빛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화 과정이 자아의 의식화와 혼동됨으로써 ‘자아’와 ‘자기’가 동일시되어 개념상의 혼란이 생겨나게 되면 개성화는 자아중심주의나 자기성애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아보다 무한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성화는 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세계를 포용하는 것이다(원형과 무의식 pp.91-94).

폰 프란츠의 ‘거미가 된 여인’은 아니무스(무의식)에 사로잡힌 여인의 이야기이다. 폰 프란츠의 ‘거미가 된 여인’은 무의식에 사로잡힌 여성의 사례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M.L. von Franz, 2017 : 박영선 역, 2020).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본능에 따라 부족의 삶을 이어가는 통상적 운명을 거부한 소녀이야기, 머리만 있고

몸뚱이가 없는 남자를 사랑한 소녀(아니무스에 사로잡힌)가 부모의 반대와 방해로 남자를 잃고 찾으러 갔다가 남자의 거절에 길을 잃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달의 영(신령스러운 곳)이 있는 곳에 갔다. 그곳에서 인간들이 달의 영에게 소원을 빌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격한 소녀는 하늘에 사는 모녀의 도움으로 지상으로 내로 오는데 '너는 눈을 감고 혼자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땅에 닿은 순간 바로 눈을 떠야해, 그러지 못하면 다시는 인간이 되지 못할 것이야.' 하늘에 단단히 고정시킨 동아줄 한끝을 잡고 내려오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발이 땅에 닿아 충분히 빨리 눈을 뜨지 못해서 한 마리의 거미로 변하였다.

통상적 운명을 거부하고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소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난다. <거미가 된 여인>에서 특별한 소원이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땅에 내려올 때 충분히 빨리 눈을 떴더라면 체험을 통해 저승과 달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되어 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샤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의식이 지나치게 약하여(빨리 눈을 뜨지 못함) 무의식의 체험이 도움이 못되고 파괴적이었던 사례이다. 분석 작업에 있어서 피분석자의 의식과 인격의 본질이 무의식의 충격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4. 원형과 상징의 모래상자

모래상자상담은 원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모래상자상담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집단적 근원과 집단 내에서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개성화과정(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다(Barbara A. Turner, 2005 : 김태련 외14인 공역, 2009)(에이드리엔의 사례).

이러한 原型的의 모습은 물질적 형상으로 형태화된 상징으로 표현된다. 각자의 심상 안에 담고 있는 원형적 상들은 세계 안에 포함하고 있는 형상 있는 물질들에 의해 표현되고 그 안에는 표현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상들은 초기에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이 특징이나 모래상자상담을 통해 거듭 반복되는 형상화와 형상의 파괴 과정을 통해 명료하게 살아나고 또는 제거됨으로서 분명하게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꾸미게 되는 모래상자는 이 원형의 이미지가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확실하고도 뚜렷한 표현이다.

모래상자상담은 무의식과의 실제적 대화가 모래그림으로 형상화되는 전체적 정신 과정이다. 모래(물질)를 손으로 접촉하고 상징물들을 배치하는 신체적 감각 행위를 통해 정신적(Geist)-심혼적(Seele) 힘들이 활성화되고 손에 의해 육체적-창조적으로 바뀌게 된다. 신체를 통해 '나'의 감각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우는 것이다. 감각이란 세상과 직면하는 첫 관문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인식하게 하는 첫 관문이다. 지성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되었거나 심리적 마비, 상상력의 마비가 있는 사람이 모래상자에서 손으로 작업함으로써 촉감의 지각을 통해 나를 인식하며 심혼적(Seele)-정신적(Geist) 힘이 다시 흐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루트암만,2001 : 이유경 역, 2009). 실제로 모래상자를 처음 접하는 유·아동,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모래 속에 손을 넣고 감촉을 느끼거나 모래를 쥐어 흩뿌리거나 모래로 형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표정들을 짓는다. 표정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심상의 흐름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처음에는 모래를 만지기 꺼려

하거나 통제와 조절을 못하고 모래를 상자 밖으로 새어나가게끔 거칠게 던지고 뿌렸던 아동들(나의 내담자 11세 찬미, 4세 우빈의 모래상자)까지도 회기를 거듭하면서 모래를 상자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태도가 변화할 때가 있다. 생활 속에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때이다.

모래상자놀이의 원칙은 모래상자에서 심상의 형상화의 순환에 있다. 즉 형상화에 작용하는 힘과 외부 세계의 심상이 해체되는 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루어진다(루트암만, 2001 : 이유경역, 2009). 내담자는 갖고 있던 기존 도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상화와 그 형상화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해체함으로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모래상자놀이는 무의식의 충동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의 종류는 심상, 정서, 감정 및 예감으로 움직이므로 무미건조하고 뚜렷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종류의 의식은 직선적이며 목적 지향적(합리적 사고)이 아니라 완만한 거시 공간적 연결을 통하여 외부와 내부 세계에서 얻어 낸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 총체적 심상을 형성하려고 시도한다. Jung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합리적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욕구 지각 행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현되므로 비논리적이고 의도성이 모호하며 비합리적인 것이 특징이다. 의식화되기 이전의 심상은 뚜렷하지 않아서 모호하고 이런 종류의 의식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공감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인내심과 공감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상담자의 역할).

모래상자상담은 정신과 물질을 잇는 중간 영역으로써 정신과 물질을 이어주는 가교이며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이 연결되는 곳이다. 육체를 넘어 정신(의식과 무의식)과 물질(모래, 세상, 환경)의 병합이 일어나는 곳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정신과 육체의 통합, 심혼과 외적 물질과의 통합이 내면 깊숙이 정서와 감정을 연결하는 체험으로 작용하여 내적 균형감이 참다운 체험, 변화,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세계Geist가 모래(물질), 모래와의 접촉(육체적 활동)을 통해 모호했던 세계를 느끼고 지각하고 두렷해지며(심상의 변화) '나'의 존재감의 자각, 세상에 대한 개념이 두렷해지며(의식화, 자아의 기능) 고통의 표현, 태도의 변화, 치유(성장)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은 Jung이 무의식의 현상들을 관조하면서 근원적 유형론의 틀을 잡았고 스스로 심리학적 명상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형상화 하는 과정과 일치하며 모래놀이도 심상화하는 방법이므로 Jung의 적극적 명상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루트암만, 2001 : 이유경역, 2009). 즉 모래상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모래상자에서 만들어지는 상이란 무의식에서 흘러오는 상과 충동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Jung에 의하면 무의식의 내용은 자아의 기능에 의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다. 우리는 뭔가를 설명하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말 외에 표정, 손짓, 몸의 자세, 목소리의 톤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적절한 언어적 표현 사용의 어려움 외에도 모호한 심상적 개념을 명료히 하기 위해 몸을 꼬거나 흔들기도 한다. 여기에 모래라는 물질세계가 접목되면 모호한 세계 무의식과 무의식적 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게다가 있는 그대로의 '나', '나의 활동'을 지켜보고 공감해 주는 상담자가 옆에 있을 때 두려움의

세계였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감소되고 억압하고 있었던 심상들의 표현이 자유롭고 힘이 날 수 있다. 무의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상징물(피겨)들을 사용하는 것이 촉진되고 흥미로울 수 있다. 이 과정을 Jung은 그가 찾으려던 최고의 물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노력에 비유하고 있다.

모래상자상담에서 모래상자 꾸미기의 반복적 과정은 마음속 ‘자기조절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이다. 다시 말해 모래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의 과정은 정신(의식, 무의식)의 분화와 통합으로 개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분화의 단계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양극성이 나타난다. 통합은 양극성이 극에 이르면(명료해지면) 마음 속 조절장치가 작동하게 되면서 변화에 대한 심리적 요소인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치료실에서 사용되는 소품들은 인간이 가진 심혼의 정신적 세계와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물질세계를 연결 짓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은 내담자의 정신 안에 갖고 있는 무의식적 原型像들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상징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을 본능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으로 높여주는 것은 대상을 象徵化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다. 상징은 인간정신의 대상화 기능이며 표현적 기능expressive과 인상적 기능impressive을 갖고 있다. 상징은 인간 본질의 심오한 표현이며 상징은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서 있어 왔거니와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데이비드 폰테너, 1933 : 최승자 역, 1988). 오래전부터 몸짓(춤) 벽화(그림) 기호(문자)들은 원시인들의 의미있는 표현 방식이었고 이 상징적 의미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태고적부터 정신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Jung이 말하는 상징은 기호와 는 구분이 되는 다른 내용으로써 상징적 표현을 어떤 기존 개념에 옷을 입혀 어떤 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파악할 때 그 개념과 상 사이에 어떤 등식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것은 상징이 아니고 기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꿈속에 나오는 막대기, 칼 등 뾰족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남근에 대입해서 해석했을 때 이러한 표상들은 상징이라기보다 기호라고 보는 것이 Jung의 관점이다(박찬부, 1980).

개인무의식이 ‘개인의 성장사와 개인의 사회,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종교·도덕적 이유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억압되었거나 잊혀진 기억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잊혀지고 억압된 내용들에서 나오는 표상들은 이미 의식의 과정을 거쳤던 것들의 ‘감추어진 상’ 즉 기호에 불과하다고 한다. 집단 무의식이란 개인무의식과 달리 개인의 차원을 떠나 ‘시간과 공간,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류 공동의 원초적인 무의식층(원형)이다. Jung이 말하는 진정한 상징의 근원지는 개인 무의식 너머 의식의 빛이 비친 바 없는 집단 무의식 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박찬부, 1980).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원형이며 원형이란 수많은 세월을 거치는 동안 인간들의 동일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가운데 유형화된 “인류의 기억이고 원초적인 행위의 틀”이다 원형은 “에너지로 꽉 채워진 의미의 핵”으로서 그 자체는 직접 인식될 수 없고 다만 외계의 대상물에 投射project 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투사란 주체의 객체화로서 형체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는 정신 내용을 대상을 통해서 인식케 해주는 중요한 정신 기능이며 그래서 상징이란 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투사

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상징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외계에 투사된 원형은 原型상 즉 상징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죽음과 재생의 원형은 영웅 성자들의 이야기나 신화적 현상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원형은 인간들의 꿈이나 환상, 신화나 설화, 각종 종교적 의식 그리고 각종 예술 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박찬부, 1980).

다시 말해 상징이란 어떤 미지의 내용물이 구상적인 모습으로 표상된 것으로서 그 표상이 아니고서는 그 미지의 뜻이 전달 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다. Jung에 의하면 상징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일 수 있지만 통상적인 뻔한 의미 외에도 함축된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말, 이름 또는 그림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막연하고 숨겨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그러나 말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은 내면적 힘을 나타내는 자연발생적 표현이며 (데이비드 폰테너, 1933 : 최승자 역, 1988) 무의식으로부터 생겨난다.

상징에 대해 이복순(2011)은 감정적 정신적 속살 비춰주는 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탄생한다. Jung이 말하는 상징이란 정신세계의 대극의 쌍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어떠한 통합원리에 의해 그 상극성과 갈등을 지양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포괄적인 하나 속에 결합하려는 “대극의 합일 원리”로 표현된다. 정신의 상징화 기능 대극의 쌍을 상징을 통해 합성하는 정신기능을 “초월적 기능”이라 한다. 상징의 역할은 대극성과 분열을 지양하고 전체성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인간 정신의 ‘자기조절 장치’의 반영이다.

모래상자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상징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이 초월적 기능으로 자신의 전체성을 이루려하는 작업은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사는 내담자 자신의 혼을 발견하고 이를 통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한다(김경희, 2014). 이를 암만은 '공명'이라고 하였다(루트암만, 2001 : 이유경역, 2009).

치료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기 경험을 되새기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경험적 의미들을 깨달으며 잊어버린 자기를 찾아낼 수 있다. 놀이만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피분석자(내담자)에게 확신감을 갖고 '놀이'가 가치 있는 것이고 형상화와 창조적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알려준다면 저절로 저항도 해결될 것이며 이것이 '공명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놀이에 대해 분석가 자신의 고유한 창조성과 긍정적 내적 확신이 담긴 태도가 보이면 피분석자(내담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루트암만, 2001 : 이유경 역, 2009).

치료실에 오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인간의 모성적 안락과 자연적 본능의 측면을 잃어버렸거나 전혀 돌보지 않아서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상황과 신체적 경험들은 상징물들을 통해 표현된다. 모래상자는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단계 즉 대극의 합일의 단계에서 이 원형적 상징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나타난다. 모래상자 놀이는 내담자의 원형상(모성원형, 어린이원형 등)이 상징화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안전하고 제한된 공간임을 확신할 수 있다.

상징은 꿈을 통해서도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기 어떤 특정시기의 꿈이 반복되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반복되는 꿈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Jung의 경험을 통해 꿈을 통해 경험이나 욕구가 어떻게 상징화되는가 알아본 것이다. Jung은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방향감을 상실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융은 아동기에서

비롯된 기억이 떠올랐는데 10살 또는 11살 때에 관한 것이었다. 집과 성을 짓고서 유리 위에 아치가 있는 문을 달았다. 돌과 점토를 반죽으로 덧붙여 사용하였고 이런 건축 작업이 꽤 오랫동안 사로잡았고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떤 감정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성인이 되어 11살 짜리와 거리를 좁히는 일은 불가능해보였지만 놀이를 함으로서 가능해졌다. 놀이에 대해 주저함, 굴욕 같은 고통이 있었으나 호수 가에서 물속에서 마음에 드는 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건축 작업을 시작하였다. 매일 점심 식사 후 또는 일과 후 건축 작업을 하였으며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생각이 점차 분명해졌다.

막연히 느꼈던 환상들을 붙잡을 수 있었고 놀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Jung은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5. 맺는 말 -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원형의 상징들

지금까지 분석심리학에서 마음의 구조를 통해 원형적 기능이 목적지향적임을 살펴보았다. 모래상자치료적 관점에서 루트암만(루트암만, 2001 : 이유경 역, 2009)은 융의 이론과 모래상자의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모래상자에서 원형의 기능과 자기실현에 관한 사례는 루트 암만의 엘리자벳이라는 여성의 상담사례와 바바라의 에이드린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루트 암만의 모래상자상담과정에서 아니무스와의 갈등으로 고심하던 엘리자벳의 사례에서 여성적인 것의 변환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루트암만, 2001 : 이유경 역, 2009 pp.149-174).

바바라의 에이드린이라는 여성의 치료 사례에서는 어린 시절 방임으로 어머니를 미워하던 에이드린이 모래상자 상담 과정에서 그 갈등을 표현하고 모래상자 내에서 모-아 일체의 경험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에이드린]은 32세의 기혼 여성이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자녀가 없으나 자녀를 원하고 있고, 성장 시에 부모에게 방임되어 왔었고 오빠 1명이 있으며 유대인이나 종교는 없다. 8, 9세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고 16세경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였다. 모친을 미워하고 모래상자 놀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이후의 자신의 자녀와는 이러한 양상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모래상자상담의 목적이었다. 모래상자 11번[p.476 그림]과 20번[p.477 그림]에서 어머니 거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p.76, p.78). 아기를 낳다 죽은 어머니 유령 귀신 앞에 서있는 게걸스럽게 먹는 괴물들을 옮겨 놓았다. 신화적 통각으로 원형적 고통을 동물적인 어미와 그들의 어린 새끼에 투사하여 인간어미와 아기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내담자 자신의 고통). 26번 상자에서 대지의 표면을 기어 다니는 26번 상자[p.477, 478 그림]는 지구 몸체(상자 26a, p.477)와 임신한 여성의 (상자 26b, p.478) 그림으로써 모래 전체가 새로운 잠재력 출생을 위한 자극이 되며 모-아 단일체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준다(Barbara A. Turner, 2005 : 김태련 외14인 공역, 2009). 모래상자 꾸미기 작업을 통해 개인무의식에 있는 기억을 해체하고 자기조절장치를 작동하여 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이다.

김은숙(2019)의 사례에서는 원형이 신화나 민담 속 캐릭터 유형과 관계가 되풀이되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 11세 남아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현과 문제행동 감소시키기 과정에서 모래상자 안에 투사되는 7가지 원형들(영웅의 원형, 조력자 원형, 관문수호자원형, 변신자재원형, 그림자원형, 트릭스터원형)이 표현되고 있다. 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과 원형적 요소들과 일치하며 신화에서의 작용하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내담자의 모래상자에 투사되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조력할 수 있다(김경희, 2013, 김은숙, 2019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래상자놀이와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상담 과정은 정신의 자기조절과정이고 의식의 정향성을 방향 짓는 훈육이기도 하다. 아동은 훈육의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에 의해 원형적 상들의 표현과 정신적 대극의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정신의 자기조절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원형들과 관련된 다양한 심상들이 모래와 모래상자, 상징물(피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들은 내담자의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며 그 중에는 집단무의식의 정신의 중핵 안에 있던 원형상들이 등장하여 의식에 통합되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다. 상담자는 성공하는 연금술사들이 가능성 있는 재료들을 혼합하고 재료들이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에 정신적 혼을 담아 가치 있는 금이 만들어지도록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내담자의 모래에 나타난 그림과 모래상자를 꾸밀 때의 태도 등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공감하며, 촉진하여 내담자의 마음속에서 가치로운 금의 발견(개성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2019). 모래상자치료와 연금술의 관계. 모래상자치료연구. 제9권, 2-18
<https://www.sandtray.or.kr>
- 김은숙(2019). 영웅 신화의 원형과 모래상자치료와의 관계. 모래상자치료연구. 제9권, 34-49.
<https://www.sandtray.or.kr>
- 김재옥 (2022). 모래상자 속에 나타난 원형. 모래상자치료학회 2022년 학술대회자료집, 8-15.
- 박찬부(1980). Jung의 상징이론. 語文研究 제5집. <http://www.eomun.or.kr>
- 송 순(2015). 「상징과 원형의 모래상자」,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3-25.
- 송 순(2017). 곤충의 상징에 관한 연구. 모래상자치료연구. 제7권, 2-27.
https://www.sandtray.or.kr/bbs.htm?id=357&code=_7&start=20&field=title&s_que=&category=&s_menu=8
- 송 순 · Bernadette Mireille Ossim Badie(2018). 모래상자치료에서 앵무새의 상징. 모래상자치료연구.
제8권, 2-13. <https://www.sandtray.or.kr>
- 송 순(2018). 모래상자에서 개구리, 두꺼비의 상징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e-book논문집. 33 권 1 집 ,
260-276. <https://ebook.wku.ac.kr/Sviewer/index.php?epub=396>
- 송 순(2022). 분석심리학에서 인격의 발달. 모래상자치료연구. 제 12권, 2-21.
https://www.sandtray.or.kr/bbs.htm?id=712&code=_7&start=0&field=title&s_que=&category=&s_menu=8
- 이복순(2011). 모래상자에서의 선택과 상징. 2011년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 추수대회자료집.
- 이부영 저(1978). 『분석심리학』. 일조각.
- Barbara A. Turner(2005)/김태련외14인 공역(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학지사.
- David Fontana (1993), 최승자 역(1998).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 Robert A. Johnson(1991), 고혜경 역(2006).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에코의 서재.
- Ruth Ammann(2001)/이유경 역(2009). 『융 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인격발달의 창조적 방법
분석심리학연구소.
- C. G. Jung / 김세영·정명진역(2015). 『인격은 어떻게 발달 하는가』. 부글Books.
- C.G. Jung 외 (1964)/이윤기 역(1996).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 C.G. Jung (1962)/조성기역(2007). Memories, Dreams, Reflections. 『기억, 꿈, 사상』. 김영사.
- C.G. Jung 융기본저작집 2(2002).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솔.
- M.L. von Franz(2017)/박영선 역(2020). The Feminine in Fairy Tales 『민담속의 여성성』 한국융연구
원

Stein, M. (1998)/김창한 역(2016). Jung's Map of the Soul- An introduction, 『융의 영혼의 지도』 .
문예출판사.

원고접수: 2024.07.20.

수정 본 접수: 2024.08.15.

게재승인: 2024.08.31